

# 각 정당 총선 출정식 갖고 본격 세몰이

4.13 선거 RUN·RUN·RUN

### 더민주 “국민의당 찍는 것은 여당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의당 “도민들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 새누리 “전북발전 위해서는 여당의원 반드시 필요하다”

제20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31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각 정당은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권영기 7기 8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현장 건너편에서 첫 출정식의 깃발을 올렸다. 김일기 상임고문은 “ 그동안 민심 수습을 못한 책임에 대해서 부끄럽고 송구하다. 국민의당이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당이 탄생해 여당이 국회를 장악할 수 있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 새누리 공식 SNS 안철수 응원 논란

새누리당이 공식 SNS(사회관계망)를 통해 야권연대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를 응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30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야권연대·야권연합 새누리당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환영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념으로 새정치 실현에 내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안 대표가 당대 당 연대 불가를 재확인하며 자신의 지역구인 노원병에서 후보자연대 없이 정면돌파하겠다고 밝힌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다.

야권연대 불발로 수도권 등 접전지의 선거구도가 일대야(一多野)가 된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공식SNS에 이같은 글을 올리자 더민주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더민주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공식 지원을 받은 안 대표의 기분이 어떨 지 궁금하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편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31일 수도권 유세 중 “야당이 분열되면 결국 여당에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구도가 아니다”라고 후보자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성주기자

김홍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자리를 지킨 당원들에게 감사하다. 현재 추세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을 심판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여당을 돕고 있다. 국민의당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도 이날 오후 1시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정동영 후보(전주병)는 “최근 선거중 가장 선거다운 선거가 막을 올렸다. 유권자들은 즐겨준 고민에 빠지게 됐다. 4월 13일 국민의당 전북 최강팀이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후보(정읍고창)는 “그동안 전북은 다른지역에 비해 왜소해지고 위축됐다. 더 큰 문제는 전북도민들이 자존심을 잃고 패배주의에 빠져있다. 다시 한번 통합능민운동 깃발을 올려 전북중심, 전북도민중심”이라고 말했다.

## 野3당 대표 ‘야권연대’ 놓고 공방전 치열

### 김종인 “야당 분열 결국 여당 좋은 일만 시킬수 밖에 없다” 안철수 “역사의 죄인이 싫으면 더민주 양보하는 것 도리” 심상정 “인물 훌륭해도 소수당 불리 정의당 문 닫으라는 것”

4·13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31일 야당은 치열한 수도권 선거운동 속에서도 야권연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정의당 심상정 공동대표는 각각 수도권 유세를 하면서도 ‘야권연대’에 대한 공중전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하는 홍의표 의원 지원 유세에서 “야당이 분열되면 결국 여당 좋은 일만 시킬 수 밖에 없다”며 “이것(야당 분열)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야당의 구도가 아니다”라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이대로 야당 분열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면 새누리당의 의식을 늘려주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날 선대회 회의에서 “각 지

역구에서 (야권 후보자간) 연대가 이뤄질 경우 중앙당에서 적극적으로 연대 과정을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야권 연대에 소극적이던 김 대표가 선거가 임박하자 후보단일화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안철수 대표는 성북구 성신여대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문재인 전 대표가 “야권 전체는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다”며 후보단일화를 압박한 것에 대해 “정말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확장성이 큰 국민의당 후보에게 더민주 후보가 양보하는 것이 도리”라고 반박했다.

안 대표는 특히 “사직(김종인)은 당대 연대를 없다고 하고, 대주주(문재인)는 당대 연대를 해야 한다고 했다”며 “더민주는 내부 이전부터 조정하는 게 순서”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정배 대표 지역이나

심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일구자”고 했다. 조배숙 후보(익산)는 “그동안 표만 찍으라는 친노패권주의에서 자존심을 회복해야 할 때”라며 “이제 호남을 대표하고 전북을 대표하는 국민의당 후보들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전북도당도 오후 2시 옛 전북 도청사 앞(전라감영 복원에정터)에서 4.13 총선 전북후보자 출정식을 가졌다.

김합삼 선거대책위원장은 “전북지역 후보 9명 모두가 전북이 어려운지 안다.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여당 의원이 꼭 필요하다. 전북을 사랑하는 일꾼들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했다.

정운천 후보(전주)는 “30년 야당독주는 계속 전북을 후퇴하게 만들었다. 30년 만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탄생이라는 길길에 섰다. 삼수생인 정운천을 꼭 합격시켜달라”고 호소했다.

/특별취재반

### 김광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패권정치 비판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 후보(전주갑)는 지난달 31일 오전 7시부터 선거 운동원들과 함께 평화동 꽃밭장사거리 출근길 거리인사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북도당 출정식, 후보자 합동유세 등 밤늦게까지 바빴던 하루 일정을 소화했다.



김 후보는 이날 도당 출정식과 합동 유세를 통해 “지난 30여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으나 오늘날 제1야당 독주의 결과물은 과연 무엇이었나”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경쟁의 논리가 사라져 버린 전북 정치권은 공천은 곧 당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공천권자에게 줄을 서는 패권 정치에 함몰되고 말았다”고 질타했다. 김 후보는 전북의 빈약한 재정을 집중 언급하면서 “지난해 전북지역 국가예산 증가율이 고작 3%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꼴찌에 머물렀다”면서 “그럼에도 이 지역 정치인들은 전북예산 6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서로 자랑하면서 도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별취재반

### 김관영 후보 ‘행복한 군산 위해 달려가겠다’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 후보(군산)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군산 시민의 승리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김관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박종서 국민의당 전북도당 고문, 진화환 군산시의회 의장, 채경석 동진신보팀 대표, 고기점 前 여성단체협의회장, 소계준 군산시비서협회장, 고선종 前 군산시지원봉사센터이사장 등 총 6명의 선거대책공동본부장을 필두로 상철삼 전북 군산시의회 의원, 조지분부장 양용호 전북도의회 의원, 홍보본부장 이성일 전북도의회 의원, 유세본부장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되어 총 9개 위원회 및 15개 특별위원회로 운영된다.

김 후보는 “힘 없이 달려온 지난 4년을 바탕으로 행복한 군산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달려가겠다”며, “합도적인 지지로 군산의 탄탄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정현을 익산시장 후보, “지역 미래 위해 봉사하겠다”

국민의당 기호3번 정현을 익산시장 후보가 지난달 31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어양동 선거사무소에서 캠프 관계자와 선거운동원들이 모인 가운데 선거 출정식을 갖은 후, 전자랜드 사거리에서 첫 거리유세를 통해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출정식에서 “본 선거가 이제 시작이다. 지난 경선과정에서 보였던 노력과 열정보다 100배 더 열심히 뛰어 본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를 잡아 지역발전의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후보는 “현재 익산시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이 중요한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 지역의 미래를 위해 봉사하겠다”면서 “지난 33년간의 중앙 공직생활의 경험과 두터운 인맥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피력했다. 정 후보는 마지막으로 “익산시민들을 위한 정책과 공약으로 유권자들에게 선택받는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며, 실현가능한 정책들을 통하여 익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새로운 꿈과 희망을 위해 익산시장 재선거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익산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강팔문 익산시장 후보, “농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강팔문 익산시장 후보(이하 강 후보)는 “농민, 농업인단체와 함께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세계적인 도농복합도시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강 후보는 “대한민국 쌀 생산량 전국 3위의 익산시는 ‘탑마루’라는 공동브랜드로 익산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탑마루’는 전국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금상과 은상을 수상했고 2016년 서울지역 학교에 급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서울친환경유류센터의 쌀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서울지역 학생들이 ‘탑마루’ 쌀을 먹게 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강 후보는 “익산시 면적 506.6km<sup>2</sup> 중 (전 55.0km<sup>2</sup>, 답 202.8km<sup>2</sup>), 과수원(0.6km<sup>2</sup>), 목장용지(2.2km<sup>2</sup>)가 280.7km<sup>2</sup>로 농경지 면적이 익산시의 전체 50%를 차지 할 정도로 농업의 비중이 높은 도농복합도시임을 지적했다”며, “농민, 농업인단체와 함께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세계적인 도농복합도시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 후보는 “북부지역활성화를 위해 시장실 운영과 농업관련부서를 이동시키고, “여성농업인 배우처와 숙박과 건강관리가 가능한 ‘농촌경로당공동체’ 조성, ‘농반기 마을 공동급식지원’ 등 농업관련 공약들을 제시하며 살기 좋은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 박종길 후보, 익산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참가

기호1번 새누리당 박종길 익산 을 후보(이하 박 후보)는 최근 익산 스포리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익산 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 후보는 “전북 발전과 익산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정책 수립하는 데 기틀을 마련했”으며 “구체적인 실천 공약과 시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등을 만나 세부적인 사업 점검을 하면서 실현 가능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후보는 “토론회에 참여한 모든 후보자가 함께 20대 총선에서 여 아를 떠나 전북지역 인사양행 해결로 지역 인재 등용을 제안해 유권자의 눈길을 끌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간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누리당도 필요하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익산 백제 문화 복원 및 관광 자원화 추진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특별취재반

### 이석권 후보, “시민의 힘으로 정치 심판하자”

기호6번 익산을 이석권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달 31일 익산지역 태권 도화원 관장 25명이 이석권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태권도화원 관장일들은 “협치 없이 패당 정치를 하는 정치자영업자의 행태에 분노를 느끼며 태권도 인 무소속 이석권을 지지한다”면서 “우리 태권도인들은 태권도의 기본 정신인 예의와 열치, 인내 그리고 국가의 정신으로 삶을 살아온 이석권 후보야말로 백범불굴의 정신으로 우리들의 삶, 익산시민의 삶을 위해 끝까지 싸워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석권 후보는 “지금까지 정당정치가 보여준 행태들을 이제는 무소속으로, 시민의 힘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이제는 시민의 힘으로 정치를 심판하고 시민이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보증을 보여줘야 정당의 행태가 바뀐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이한수 후보, 안철수·천정배 대표와 세몰이 나서

국민의당 기호3번 이한수 익산갑지역 국회의원 후보(이하 이 후보)가 2일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와 함께 하는 전진대회를 시작으로 표심 잡기에 불을 지핀다.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와 당 지부가 대거 참여한 가운데 이한수 후보와 함께 하는 대규모 전진대회는 오는 2일 오전 11시30분 익산시 모현동에 위치한 이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시작해 서부권 일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호남권 세몰이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익산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선택을 기치로 펼쳐지는 이번 전진대회는 4.13 총선 승리를 위한 익산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전폭적인 성원을 당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마련된다. 또한,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는 이날 이한수 후보와 함께 익산 주요 지역을 돌며 지역 현안 문제를 들어보고 주민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 보는 시간도 갖는다.

/특별취재반

### 안호영 후보, “깨끗하고 소신있는 정치 선택해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31일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어제 오전 10시 완주군 둔산공원 앞에서 열린 선거출정식에는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와 당원 및 지지자 50여명이 참석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안호영 후보는 출정식 인사말을 통해 “2016년, 대한민국의 광범한 삶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으로 특권층을 위한 자기 배만 불리는 탐욕의 정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삶의 질과 관련한 각종 수치를 보면 젊은이들이 시는게 고통을 넘어 자유수준”이라며 “헬조선이라 자조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고 말하고 “대한민국의 보통 삶들이 절망하지 않으려면 반칙과 부정의 낡은 정치를 버리고 깨끗하고 소신있는 정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반

### 박희승 후보, 출정식 갖고 본격적 선거운동 돌입

조용하고 한가롭던 시가지 풍경이 시끌벅적한 정서가 되었다. 4.13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8명의 후보가 등록한 임순남 선거구에서도 여의도 입성을 위한 한판 격전의 서막이 올랐다. 기호 2번 박희승 캠프에서도 필승을 다짐하는 대대적인 출정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였다. 등록후보 중 가장 출발이 늦은 박희승 후보는 그동안 인지도에서 취약성을 보여 왔으나 3월 30일 언론 3사가 공동 발표한 여론조사결과 서서히 지역주민들에게 “새 인물 새 출발” “더불어 민주당에서 영입한 인재”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기존 조직이 원활히 가동되어 더불어 민주당의 지지도를 조금만 더 끌어 올려 세 물이를 확산해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선거 관세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별취재반

### 임정엽 후보, 이력·정치·공약 담은 동영상 공개

국민의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임정엽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표심을 잡기위한 대표 로고송 2개를 선택했다. 대표 선거 로고송으로 박상철의 ‘무조건’과 거북이의 ‘빙고’를 개사해 사용한다.



임 후보 로고송의 주요 내용에는 “로컬푸드 일꾼 임정엽! 완주,진안,무주 장수의 기본좋은 변화! 믿고 맡길 단 한사람! 임정엽을 확실하게 믿어주세요!”이다. 아울러, 임 후보는 3가지 버전의 동영상 공개했다. 이력, 정치, 공약 등 총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된 영상은 임 후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영상으로 녹여냈다. 임 후보는 “로고송과 영상을 통해 유권자들과 쉽게 접근하고 총선 승리를 통해 완주,진안,무주,장수 군민들에게 기분 좋은 변화를 ‘무조건’ 이루겠다”며 “믿고 맡길 단 한 사람, 임정엽을 지지해 달라”고 밝혔다.

/특별취재반